A형간염 예방·확산 방지 주력

전주시보건소, '유행 원인' 조개젓 안전성 확인 시 까지 섭취중단 권고… 환자 가족 등 무료 예방접종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A형간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올해 A형간염 환자 발생신고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2차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올해 A형간염 발생의 주요 원인(87%)이 오염된 조개젓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안정성이 확인 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소는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전국 A형간염 신고환자 중 30~40대가 73.4%를 차지하고, 성인이 A형간염에 이환되면 영유아에 비해 증상이 심하고 간부전 등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아 능동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치명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A형간염 환자 발생 시 전파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가족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2주 이내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접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소는 21일부터 A형간염 환자의 가족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키로 했다.

접촉자 중 A형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감염력이 없는 사람은 노출 후 2주 이내에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A형간염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소는 A형간염의 전파경로 차단을 위해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조개류 익혀 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A형간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A형간염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장기간의 예방효과가 있는 예방접종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환자 가족 및 접촉자의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2차 감염 예방은 물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51~3)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유파별 완창무대로 소리의 맥 잇다

전주시, 25~27일 '전주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유파 대제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의 고장인 전주시가 판소리를 전승해온 각 유파별 특징을 담은 판소리 다섯바탕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전주시는 소리의 고장이자 민속음악 본향으로서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2019 전주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유파 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판소리 다섯바탕을 통해 소리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 전주의 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여행객과 전통음악의 매력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획된 완창무대이다.

3일간 매일 약 6시간 정도(한바탕 3시간 공연) 진행되는 이번 완창무대에서는 △심청가(동추제, 보성제, 박동실제) △수궁가(보성제, 동편제, 미산제, 정광수제, 동초제) △적벽가(송판제, 동초제, 보성제) △흥보가(미산제, 동편제, 동초제) △춘향가(김세종제, 만정제, 동편제, 동초제) 등 총 18개의 바탕별 판소리 제(판소리 전승의 큰 줄기)를 만날 수 있다.

공연에는 △권하경, 방수미, 지선화(이상 심청가) △박양덕, 정옥향, 김소영, 이난초, 주소연(이상 수궁가) △박정선, 윤진철, 김경호(이상 적벽가) △전예주, 천희심, 정상희(이상 흥보가) △송재영, 서정민, 전인삼, 박성희, 김나영(이상 춘향가) 등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를 비롯한 19명의 명창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소리문화관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판소리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판소리 다섯바탕 완창무대와는 달리 이번 완창무대는 명창들의 다섯바탕 유파별 소리를 들려주는 변화로 인해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을 만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새로운 판소리의 문화를 이끌기 위해 건립된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전국 최초 판소리 유파별 완창무대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주가 국악의 중심이자 선두가 되어 관객과 소통하고, 소리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대 판소리를 통해 우리 소리의 맥을 이어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소리 다섯바탕 유파별 완창공연은 전석 무료관람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063-281-2680) 또는 문화예술공작소(063-232-99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클린병원 만들기' 앞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병원 내에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윤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 교육과 청렴슬로건 공모, 클린데이 행사 등을 통해 '클린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감사실 주관으로 최근 임직원의 청렴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병원 본관 1층 로비 및 임상연구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CUH 클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의 활동을 설명하고 대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부패 공익신고 리플릿을 배부했다. 행사장에서는 특히 이란우 상임감사를 포함한 감사실 전 직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내원객 및 임직원들에게 직접 부패 및 공익신고 안내절차를 담은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슬로건 공모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내가 지킨 우리 건강! 함께 지킬 청렴 건강!'을 SMS 문자로 발송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업무협의회 주재하는 농진청장

21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김경수 농촌진흥청장이 전국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주 우정회, 완산동 독거노인 가구 대상 집수리 봉사 실시

전주지역 봉사단체인 함께라서 행복한 사람들 '우정회'(회장 이강우)는 최근 전주시 완산동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우정회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붕교체, 담장도색 등 안전과 누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당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정회원들이 함께 손본 제9호·제10호 드림하우스가 만들어졌다. 우정회는 또 이날 완산동주민센터와 협력해 마을 어르신 등 주민 20여명을 초청해 국수와 음식을 나누며 어울림 잔치도 함께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전면허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세상을 향해 나간다 뛰뛰빵빵 취업하자!'를 진행, 참여자 중 9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 면허 취득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주시 꿈드림과 업무 협약을 맺은 신삼천자동자운전면허학원에서 이뤄졌다. /김윤상 기자

문화재생·복지·탄소… 전주를 배워라

팔복예술공장·서노송예술촌 등 방문 전국 지자체 발길 줄이어
소재 국산화 중요성 부각되면서 탄소융합기술원 방문도 늘어

전주형 문화재생사례와 가장 인간적인 복지정책, 탄소산업 육성 등 전주시의 우수한 정책과 선진사례들을 배우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올해 대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일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온 전주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탄소전문연구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방문하는 국내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의 벤치마킹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해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산업단지 내 폐공장을 문화예술거점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 프로젝트인 '서노송예술촌', 전주형 복지정책, 탄소산업 육성 등 우수정책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20년간 문을 닫았던 폐카세트공장을 전시공간과 예술인 창작·전시공간, 주민 문화공간, 카페 등을 갖춰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에는 전주형 문화재생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지난해 84개 단체가 방문한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종시 문화공간재생사업단, 수원시, 창원시 문화특별도시조성사업단, 성남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대전문화재단, 경남교육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92개 기관이 방문했다.

팔복예술공장은 시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공간으로, 시는 팔복예술공장 조성사례로 지난 3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9월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도시·지역·사업 등에 수여하는 도시경관분야 최고 국제상인 '2019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예술과 인권의 마을로 만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서노송예술촌에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등 51개 단체가 방문한데 이어, 올해도 부산시청과 전국연대상담소 등 42개 단체가 방문해 걷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미촌의 변화를 배우고 돌아갔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육성해온 탄소산업을 배우기 위한 전국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윤혁, 이하 기술원)에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각각 37개 기관(1468명)과 32개 기관(1183명)이 방문한데 이어, 올해 현재 40개 기관(1262명)이 방문했다.

이외에도 올해 청주시·수원시·대구 달서구·군산시·인천시·국토부 주거재생과 등 7개 기관이 사회주택 등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으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가장 인간적인 전주시 복지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배우기 위한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속가능발전 지역 연구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미래 주역인 전주시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지역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이 10편의 논문으로 작성돼 공개됐다.

전주시는 21일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지역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과 지도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지역 연구 프로젝트 YESDO'의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지역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총 10개 프로젝트 활동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그간의 연구과정을 함께 공유했다.

10개 프로젝트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률 증가를 위한 시설 개선(젓가락팀) ▲첫마중길 활성화 방안(잡도리팀) ▲지속발전 가능한 전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쭈삼팀) ▲GMO 완전표시제(국.특.칠팀) ▲탄소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전참시팀) ▲고교 급식잔반 실태조사와 해결방안(개플레셈팀) ▲전주시 외래어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전주나요,안전주나요팀) ▲전주시 생태계 교란종 문제점 및 해결방안(플러스팀)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시덤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연관성(최신2김팀)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전주시의회는 21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등 8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2회차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순천제일대학교 겸임교수 선순자 강사로부터 '작은 일상의 변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의 개념 및 판단기준, 4대 폭력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 등 주요 사례를 듣고 직장 내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들었다.

박병술 의장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직장 성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로페이 챌린지' 캠페인 참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8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로페이'란 정부와 17개 지자체, 은행이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와 협력하여 만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달라지는 혜택이 있다. '제로페이 챌린지'는 제로페이 사용 인증샷과 영상 등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해 이어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공단 본부에서 열리는 '연금이 금요장터'에서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 후 관련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로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를 추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주혁신맘 모여라' 카페회원 중 여성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은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 사용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